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진현종씨 5월초 출간

한글번역본만 해도 2백여권이 넘는 팔만대장경의 핵심을 추려서 보여준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이 나온다.

지난해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한권으로 읽는 고려왕조실록> 등을 펴낸 달녘출판사가 <한권으로 읽는 시리즈> 제 3탄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을 5월초 선보이게 된 것.

이 책은 해설이 간략한 팔만대장경 복한 해제본을 토대로 크게 대승삼장과 소승삼장, 보유장삼권으로 나눠 기술했다. 반야부의 경우 금강경과 반야심경 등을 통해 설명하는 등 1백여종을 중심으로 불교 사상의 체계와 흐름을 직접 공부할 수 있게 했다.

대중들의 편의를 고려해 본서에 동국대 역경원의 분류법을 바탕으로 팔만대장경 1

천5백여종의 경전에 대한 간략간략한 설명과 해제를 별책부록으로 따로 발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팔만대장경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구조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적 의미 이외에는 거의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책은 철저히 대중의 입장에서 팔만대장경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고 그 책

1백여 경전 핵심정리

“불교사상 흐름 일목요연하게”

심사상은 무엇인지를 쉽고 간명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집필을 맡은 진현종씨(31)의 말이다.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연 방대한 팔만대장경을 한권으로 묶어내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여러번 제기됐었지만 학문적인 깊이보다는 팔만대장경의

대중적 보급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

일반 대중들에게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방향을 먼저 느끼게 하자는 것이 간행 목적이기도 하다. 기획자 달녘출판사 장익순실장은 “이 책을 통해 우리민족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불교문화의 유전자를 일반인들과 공유하고 불교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불교르네상스’를 열고 싶다”고 말한다.

현재 장경연구소에서 팔만대장경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고, 동국대 역경원이 고려대장경 한글 번역을 맡아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책의 출간은 팔만대장경의 학술적 업적을 대중과 함께 공유하고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불교의 입문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은자 기자



◇동국대 역경원에서 출간된 한글 대장경 중 일부.

독서칼럼



홍사성

머칠천 우편으로 배달된 책 한권을 받았다. 제목은 <근본불교의 가르침>. 책을 보내온 사람은 저자인 김정민씨였다. 김정민씨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단(丹)>을 쓴 작가다. 불교학자도 아닌 ‘작가’가 소설이 아닌 본격적인 불교교리서를 저술했다는 것도 흥미롭지만 그의 관심이 ‘근본불교’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은 더욱 이채로웠다. 또 저술경기가 불교교리의 이론적 탐구가 아닌 구도적 고민의 산물이라는 점도 돋보였다.

<근본불교의 가르침>은 종래의 불교교리서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유난했다.

첫째는 저자의 불교공부에 대한 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 불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워낙 다채롭고 복잡 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러한 책들은 자신도 모르는 주장이나 개념, 용어를 늘어놓기가 다반사다. 이에 비해 <근본불교의 가르침>은 경전(아함경)을 읽은 저자 자신이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한 내용만을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읽기가 쉽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책이 갖는 최대의 미덕은 불교를 하나의 철학적 이론체계 가 아니라 부처님이 강조했던 것처럼 ‘고(苦)’와 ‘고의 지멸(止滅)’을 위한 실천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수행조차 관념화되고 관념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불교풍토에 하나의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민의 ‘근본불교...’을 읽고

“불교는 부처님으로부터...”

교리공부 원칙 명확히 제시

사성제 자의적 배열 거슬러

불교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어디서 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몰라 방향하기가 예사다. 다행히 그가 찾아낸 방법은 ‘불교는 부처님 그 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상식일 터이지만 대승불교적인 우리나라 불교현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형편에서 그가 ‘불교공부의 원칙’을 발견한 것은 큰 행운이었다. 이는 그가 이른바 제도권에서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라 비제도권에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의 대승불교의 교상관석(敎相觀石)과 경전학술 문제에 대한 비판은 도전적이기 까지 하다.

둘째는 자신이 이해한 교리체계를 어려운 이론이 아닌 풍부한 비유와 정치(精微)한 논리로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불교교리서는 자신이 이해한 불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입장이나 학설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서술돼 있다. 그

인지 어전지는 판단을 유보해야 할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사성제의 배열을 고집멸도(苦集滅道) 순이 아니라 고집도멸(苦集道滅) 순으로 한 것이라든가 몇몇 군데에서는 교리구조를 도식화하는 데서 오는 무리한 설명, 그리고 지나친 자의적 해석 등은 아무래도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그야말로 지엽적인 것이다. 책을 끝까지 읽다보면 오히려 그동안 혼자서 공공 앓으며 고민하던 많은 부분이 해소되는 점이 더 많다.

나는 김정민씨와 겨우 이름 석자나 알고 지내는 사이다. 따라서 이 책을 선전할 이유도 없고 서평을 할 처지는 더욱 아니다. 다만 ‘불교는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특별한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는 원칙을 강조하는 그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불교가 이제부터라도 특별한 주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불교텔레비전 제작국장>

정토교 시대별 변화·발전상 개관

중국정토교리사 태원스님 옮김

중국에 정토사상이 도입되기 시작한 후한시대 아마타 경류 경전의 최초 번역으로부터 청나라 후기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로 정토교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쇠퇴 등을 개관한 책이다.

정토신앙은 열불, 사경, 불상조성 등으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등의 타력적인 요소가 강해 근거가 약하고 여러가지 장애로 말미암아 일반 중생들에게 적합한 수행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중국 각 시대의 출가자와 재가자를 망라한 정토수행자들의 사상과 실천 수행의 모습을 광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선종 및 화엄종 등



다른 종파들이 정토교로 귀의하거나 혹은 정토사상과 융합하여 변화발전하는 모습도 다루고 있다. 일본불교학자 모찌즈메 신코박사의 <중국정토교리사>를 중앙승가대학교수인 태원스님이 번역했다. <운주사 2만원>

역사적 인물로서 부처님 일대기

붓다 김경연 옮김



‘한길로로’ 시리즈 제2권으로 출간된 이 책은 세계출판계에서 전기물의 모범으로 평가받는 ‘로로로’ 평전시리즈(독일 로보트출판사)를 번역한 것. 부처님 당시 인도의 사회, 정치, 문화적인 측면에서 붓다와 불교를 조명하고 있다. 이 책은 붓다

를 역사적인 인물로 파악, 가우타마로 지칭하면서 서구에서의 불교수용과정과 한계 등을 간략하게 점검하고 일대기를 정리하고 있다.

사회적 역사적 접근방식을 통해 불교의 성립과 고대인도의 사회적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간명하게 짚어내고, 깨달음을 얻고 인류의 스승으로 우뚝서기까지 극한의 고행까지도 감수했던 가우타마의 행보를 담담한 문체로 서술했다.

또한 뛰어난 실법자이자 탁월한 교단 조직자로서의 가우타마의 면모들도 보이고 있다. 국제선불교연구원회 간부인 독일 플러츠츠박사의 저서를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한 김경연씨가 번역했다. <한길사 8천원>

“한 조각 해맑은 웃음으로 눈물 가리우고 한방울 이슬 눈물로 엮어 흔들리지 않는 그리움 채웁니다.” <조현숙 시집은 그리움>

‘수레를 따르는 바퀴자국 같이 남은 흔적 한알의 씨앗이 되어 맑은 그리움으로 부처의 심장에 꽃입니다.’ 4개의 부제가 하나의 제목을 이뤄 긴 제목처럼 진솔한 언어이 넘쳐나는 시집이 나왔다. <한누리미디어 펴>

불교계 상담기구 ‘자비의 전화’ 상담원인 현정 순환옥

“삶의 고민 詩語로 화답”

시집 ‘수레를...’ 발간

이집이 조현숙씨 등 4인이 그동안 상담하며 느낀 진솔한 삶의 단상들을 시집으로 엮은 것.

이 시집은 총 105편의 작품이 4개의 소주제로 엮여졌다. 이들 시에는 상담원들이 상담을 하며 느낀 솔직한 삶의 내용이 담담히 배어있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

“상담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발견하고 마음을 맑히는 계기가 됐다”는 이들은 “얼은만큼 화양의 결과를 시집에 모았다”고. 23일 자비의 전화 7주년 기념식에서 출간 기념회도 함께 갖는다.

김원우 기자

“설화문학총서” 1차 5권 출간

신화, 전설, 민담, 설화

우리민족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설화문학을 집대성한 <설화문학총서(전통문화연구회 펴)>가 나왔다. 고전(古典)의 현대화를 통해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접목시켜 문화의 올바른 전승을 확립하기 위해 간행된 이 시리즈는 애정 우정 우애 충효 적선 보은 풍수지리 일화 등으로 분류 10권으로 간행된다. 1차로 <봄은 달아 수놓은 베개를 엮어보지 말아다오> <밤비랑아 무슨 일로 비단 휘장을 걸느냐> <애화는 피리소리에 휘하여 향기롭구나> <사림문 앞에서 친구를 맞아오네> <남아가 한 번 눈물을 흘린 뜻은> 등 5권이 출간됐다.

중견 한학자 김동주씨(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문위원)가 옛 전적(典籍)에 실려있는 설화를 가려 뽑아 우리말로 옮겼다.

새로나온 책

▲한국불교사-지난 86년 간행된 김영태교수의 <한국불교사>를 대폭 수정 증보해 재구성한 한국불교연구보고서. 부록으로 한국불교의 종파 역사를 담았다. <경서원 1만5천원>

▲운수일기-일본의 한 젊은 스님이 인생일대의 큰 뜻을 품고 구도(求道)의 길을 떠나는데서부터 선 수행과정을 담은 책. 구석구석 그림을 곁들여가며 재미있게 일기식(日記式)으로 전개했다. <인어문화 6천5백원>



▲대흥기회-6천원 <대흥기회 6천원> ▲그대 물음에 있는 도둑부터 잡으시게-삼국유사를 저술한 우리민족의 큰 스승인 일연선사의 일대기를 담았다. 불교방송의 인기프로그램이었던 고승열전을 집필했던 방송작가 윤정광씨가 집필했다. <인어문화 6천5백원>

▲불교우회-심원한 불교철학과 사상을 상징적인 우회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책. 불교경전가운데 문학성이 내재된 비유들을 추려내 우주의 진리와 인류의 역사, 그리고 인생의 의의를 고스란히 담았다. <지성문화사 7천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린
2	나는 누구인가	마하리쉬	청 하
3	그까지 살았으면 어땠을까	학 일	여시아문
4	불교입문	포 교 일	조계종출판사
5	마음을 다스리는 법	김 정 민	종 지
6	도솔천에서 만났습니다	장 순 용	세 계 사
7	살아있는 禪	라즈니쉬	성 하
8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9	한국불교사	김 영 태	경 서 일
10	한글 아함경	고 익 진	동국대출판부

구입문의: (02)737-0695

“ 求道の 길 ”

운수일기

雲水日記

著·文 佐藤義英
譯 釋圓然

雲水日記는 일본의 한 절승은 僧侶가 人生一代의 큰 뜻을 품고 求道の 길을 떠나는 데서부터 출발, 修道過程을 그림을 곁들여 가며 재미있게 日記式으로 소개한 것이다.

저자 佐藤 義英
平田 精耕
加藤 隆芳
역자 釋 圓 然

정가 6,000원

도서출판 대흥기회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8
TEL : 738-6270, 735-7202
FAX : 733-1016

생명공학과 부적

생명공학의 지혜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박지명 역음/신국판/값 18,000원

“성공을 위한 소리에너지(주문)의 형상에너지(부적)의 신비한 효험!”

인간의 몸에는 수많은 에너지의 선과 흐름이 있으며 그것은 정신의 진화과정 상태로 연결된다.

이 책은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 왔던 삶의 나쁜 에너지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소리와 형상 에너지에 접근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획기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내가 만드는 행운의 부적

운담 역음/신국판/값 12,000원

전국 대형서점 절찬리 판매중!!

개침의소리
전화: (02)444-3575